

원시농경문화에 대한 제문제

최 정 필

(세종대학교 박물관장)

I. 머리말

인류의 역사 5백 만년을 살펴 볼 때 인간이 생계수단을 수렵-채집경제생활에서 농경문화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만년 전이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농경문화는 지역과 민족에 따라 독자적으로 개발된 경우도 있지만 타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이를 생업으로 채택한 예가 대부분이다. 지구상에서 농경문화가 독자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곳은 중동의 Zagros와 Levant지역, 동남아시아의 타일랜드, 중국의 양자강과 황하유역, 멕시코 중부의 고원지대, 그리고 남미의 페루지역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위에 언급된 초기 농경 중심지에 이집트의 나일강 중류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나일강 유역에서 발견된 농경문화의 자료는 기원전 8,000년경으로 절대연대가 측정되었고 이와 관련된 문화요소가 중동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중심지 외에도 농경문화가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후빙기를 전후하여 개발된 농경문화는 서서히 발달하여 인접지역으로 파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까지 농경문화를 수용하지 않았던 민족은 계속 수렵-채집경제인으로 남게 되는 사실이 민족지와 민족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고학자와 문화인류학자들은 농경문화의 개발을 인류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문화적 변천과정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자연과학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왔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관계학자들은 지역에 따라 초기에 재배된 식물과 사육된 동물의 형태학적 특징은 물론, 당시의 자연환경을 어느 정도 규명하였다. 그리고 농경문화에 대한 발생과정의 요인이 무엇이며, 또한 어떤 단계를 밟아서 수렵-수집경제사회가 농경사회로 전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설을 제시해 놓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한반도의 원시농경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분야의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영세한 자료 때문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겠으나, 본 명제에 접근하는 방법론과 선사학의 주 과제인 경제양상을 소홀히 다루어 왔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 초기농경문화는 문화전파론에 입각하여 대륙으로부터 이주해온 집단에 의해서 확산되었거나, 또는 대륙으로부터 막연히 전파되었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존연구에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논리를 염두에 두고 농경문화가 한반도에 수용되는 과정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겠다.

필자는 위의 사실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벼농사를 포함한 원시농경문화를 다룬 적이 있으나 물론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의 초기농경문화가 대륙으로부터 이주해온 집단에 의해 혁명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중서부 인들이 변화하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생계수단이라고 생각된다.

한반도에서 농경문화가 최초로 전개된 곳은 중서부지역으로 추정된다. 중서부인들은 늦어도 중기 신석기시대 전반기에 조와 수수 등의 잡곡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벼농사는 잡곡농사를 시작한 이후에 원시농경문화의 변천과정에서 빗살무늬토기시대 말기에 수용되어 서서히 전개된 것이다.

II. 농경문화의 기원에 관한 가설

마지막 빙하기의 종식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바탕을 둔 차일드(Childe)의 오아시스이론은 현지에서 현대고고학자들과 자연과학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공동발굴 조사한 결과 그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 중동지역과 멕시코지역의 발굴에 의하면 후빙기에 접어들어 사막이 형성될 정도로 기후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를 계기로 1960년대 이후부터 농경의 기원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원인의 규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동과 멕시코지역을 발굴한 블레이드우드(Braidwood)와 맥네시(MacNeish)의 이론에 의하면 초기농경이 발생한 곳은 재배된 곡물이 천연적으로 서식하고 있었던 지역이며, 인류의 문화가 성숙단계에 이르러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심리적으로 단일한 생활을 원하게 되고, 따라서 농경문화를 개발하게 되었다는 문화진화론에 입각하여 농경의 기원설을 전개하였다.

한편 사회학자인 보스럽(Boserup)은 말사스(Malthus)의 인구론을 인용하여 인류문화가 채집경제에서 농경사회로 전환하게 된 주요원인을 인구의 증가에서 오는 압력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인구증가이론은 많은 관련학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문화의 주된 변동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Boserup의 이론은 현존하는 채집경제사회의 민족지를 검토해볼 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채집경제인들은 그들이 처한 자연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자연 속에 산재한 야생먹이의 양에 비해 인구수를 항상 적게 조절하여 경제란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빈포드(Binford)는 이러한 보편적인 인구증가설을 부정하고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정 지역의 인구증가와 인구압력설을 주장하고 있다. Binford는 초기농경의 기원과 타지역으로의 전파는 각 민족이 참여했던 그들의 생태계에 적응하는 하나의 문화적 수단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Binford의 이론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초기농경이 발생한 지역의 자연환경은 다양한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구문제와 관련지어 보면 두 가지 형태의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첫 번째 사회는 인구의 이동이 밀폐되어 풍습에 따라 유산 또는 여자영아 및 노약자 살해 그리고 혼인규제 등의 자

울조정체계가 자체내의 인구를 조절하여 천연자원의 양과 평형을 유지하였다.

한편 다른 형태의 사회는 인구의 이동이 개방된 사회로 자연에 산재한 먹이의 양에 비례해서 인구의 밀도가 어느 정도 상한선에 이르게 되면 그중 일부가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생활처를 마련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경의 기원은 인구의 이동이 빈번한 개방사회체제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특정지역의 인구증가가 압력을 받아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즉 Binford의 이론을 중동지역에 적용시킨다면 후빙기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은 풍요한 수산자원의 형성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해안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자 이에 압력을 받은 해안 지역의 수렵-채집경제인들은 서식처를 야생식물이 많이 분포하는 내륙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내륙지방으로 이동한 이들은 풍요한 자원을 바탕으로 정착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정착생활은 또다시 인구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여기에 인구압력을 느낀 일부의 사람들이 다시 재배작물의 천연서식처인 변방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농경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Binford의 이론은 프랜너리(Flannery)를 비롯한 많은 그의 후학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아왔으나, 고고학적인 면으로 볼 때 아직도 그 명확한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중동의 자이그러스(Zagros)와 멕시코의 테화칸 (Tehuacan) 그리고 오화카(Oxaca)지역을 십여 년 동안 현지조사해 온 Flannery는 그의 연구 결론에서 농경의 기원은 인구의 증가 또는 자연환경의 변천에서 오는 복합적인 변인들이 작용했으므로 단순히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요소로 한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멕시코의 농경기원 문제를 규명하는 데 체계이론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프랜너리는 농경의 기원문제 보다는 전개과정을 중요시하는 과정주의 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점이 특이하다. 근자에 와서 린도스(Rindos)는 원인 추구론과 과정주의 관점을 종합하여 농경의 발생 요인을 야생식물과 인류문화의 공동진화에 기초하여 가설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설득력이 없는 형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인 단일요소로는 각 지역의 농경기원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관계학자들이 여기서 얻은 결론은 각 지역의 자연 및 사회환경에 따라 변인은 다르게 작용했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변인은 정착생활로 인한 인구증가와 자연환경의 변화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설명할 한반도의 농경기원과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대고고학의 연구결과가 비록 이렇다 할 원인규명을 내세우지는 못하였지만, 농경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색다른 여러 가지 사실을 지적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동안 농경문화의 기본요소로 간주되어온 토기, 마제석기(특히 갈돌), 정착생활 등은 농경문화 이후로 보편화되었지만, 농경과는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채집경제인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만년 전에 마제석기를 제작하였고, 일본의 죠평문화에서는 1만 2천년 전에 토기를 제작하였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인디언들은 지금도 채집경제로 인한 정착생활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중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착생활과 마제석기가 농경보다 선행되었고 그 다음에 토기가 출현하였으며, 멕시코의 경우는 농경의 시작으로 정착생활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 마제석기와 토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초기농경문화가 혁명처럼 갑작스럽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맥네쉬교수의 테화칸 발굴에서도 증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 알게 된 또 한 가지 사실은 채집경제인들도 식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식물재배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곡물이 처음 재배되었을 때는 그들이 원했다기보다 자연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농경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Ⅲ. 한반도의 농경문화 전개 이론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의 농경문화는 중국대륙으로부터 집단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에 의해 전개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농경기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리적 전파과정이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농경문화를 대륙으로부터 채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면 우선 농경이 핵심지역에서 동남유럽과 미동부지역으로 전파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한반도와 상호 비교해 본다면 한반도의 농경문화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남유럽과 미동부지역은 한반도와 자연환경이 서로 비슷한 지역이지만 농경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두 지역은 서로 대조를 이룬다. 왜냐하면 유럽지역은 외부로부터 이민해 온 사람에 의해서 농경이 시작되었고 미동부지역은 환경에 적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농경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반도의 초기농경문화 실태가 위의 두 지역 모델 중 어디에 더 가까운가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유럽의 농경에 대해서는 이민설, 자연전파설 그리고 자체 발생설이 있지만 동남유럽과 중부유럽은 이민에 의한 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 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농경문화 전파의 속도이다. 멀리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농경문화는 Anatolia 또는 지중해를 거쳐 적어도 BC 6000년경에는 유럽에서 가장 동남지역인 그리스에 출현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BC 5,000~5,500년경에는 동남유럽의 북부지역에서 스타세보(Starcevo)농경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Starcevo문화는 또다시 중부유럽으로 전파되면서 Linear토기문화를 형성한다. 이 Starcevo문화가 중부유럽의 전지역으로 전파되는 데에는 불과 4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BC 3,500년경에는 멀리 덴마크지역까지 이 농경이 전파되었다. 이런 전파의 속도를 한반도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대조적이다.

다음으로 특이할 만한 사실은 농경문화를 형성하는 복합요소들이 한꺼번에 출현한다는 점이다. 즉 유럽의 농경문화는 서서히 발전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고 농경, 토기, 마제석기, 토제 인형 및 인장 등과 정착생활이 같은 시기에 유입되어 초기농경과정에서 이미 성숙한 농경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다시 논의하겠지만 농경의 복합요소가 동시에 출현하는 현상은 한반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지금부터는 한반도의 초기농경 발달과정과 비슷한 현상을 이루는 미동부지역의 농경에 대한 특색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둘 사실은 미동부지역의 농경문화는 이민사회에 의하여 전파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다.

멕시코지역에서 발생한 농경문화가 미남부지방에 유입된 이후 동부지역에 이르러 정착되기까지는 약 4천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이는 미동부의 고대 인디언 (Archaic)인들이 농경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윤택한 자연환경에서 오는 이점과 계절에 따른 효율적인 경

계획성 때문에 본격적인 농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말기 Archaec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곡물의 재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경문화가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했으며 발달과정도 매우 점진적이었다.

다음 특색으로는 농경문화의 복합요소들이 한꺼번에 소개되지 않고 각기 시간을 달리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토기 대신에 바구니가 먼저 제작되었고 그 다음으로 정착생활, 인구증가, 마제석기, 농경, 그리고 토기의 순서로 시간을 달리하며 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재배된 식물의 종류도 모두 같은 시대에 나타나지 않고 각기 그 시기를 달리하고 있으며 옥수수의 재배가 가장 늦은 시기에 행하여졌다는 사실이다. 옥수수는 후대 미신대륙 원주민의 주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미동부지역의 옥수수 농경문화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재배된 이유는 미동부의 자연환경이 남부지역과 다르기 때문이다.

즉, 추운 동부지역에 초기에 재배된 옥수수가 적응하려면 그 유전인자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므로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말이다. 이는 마치 벼의 진화과정에서 장구한 시간이 흐르면서 장립(indica)형과 단립(japonica)형이 분리 진화되어 한반도처럼 기온이 낮은 지역에 뒤늦게 적응 전파되는 것과 흡사하다.

끝으로, 미동부 초기농경문화에서는 동물의 사육이 미약하게 이루어졌다. 개와 칠면조가 사육되었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은 후기의 일이다. Harris교수에 의하면 이런 미약한 동물 사육이 초기농경문화 발전을 지연시켰다고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미동부지역의 농경발달과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민에 의해서 형성된 유럽 지역의 초기농경문화와는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음에 논의할 한반도의 농경전개 과정과는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명 빗살무늬토기시대라고도 불리우는 한반도의 신석기시대는 농경의 개시와 관계없이 토기의 출현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대다수의 유적지가 강안이나 해안에 위치한 관계로 많은 학자들은 신석기인들의 생업이 어로행위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과 유적을 당시의 생태계와 연관시켜 분석해 본다면 초기 신석기시대의 서부지역과 동부해안지역은 경제생활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부지역 인들은 해안에서 가까운 강안에 거주하였으나 야생식물과 열매의 채집을 주로 하였고 수렵과 어로행위는 부수적이었다. 반면에 동부해안지역 인들은 어로행위를 주 경제생활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초기신석기시대의 암사동, 궁산리, 지탑리, 오산리, 그리고 굴포리인들은 주거지의 형태, 토기의 크기, 출토유물의 양으로 볼 때 정착생활을 한 흔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 한반도서부 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형태의 자연환경(들판, 인근 야산 그리고 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정착 생활이 가능했을 것이고 이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 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좀더 넓은 안목에서 볼 때 서부인들의 경제양상은 프렌너리 교수가 말한 <broad spectrum>모델과 일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들의 주거양식은 앞에서 설명한 Binford의 개방체계 속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농경의 기원은 중기신석기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서부지역인들에 의해 전개된 것이다.

IV. 한반도 농경문화의 증거

현대고고학에서 농경의 증거를 암시해 주는 자료로서, 유적지 일대에서 야생으로 분포하지 않는 곡물이 출토되거나, 출토된 곡물이 형태학적으로 야생종과 다를 경우, 전기문화층에선 볼 수 없었던 식물이 다른 음식물의 양에 비하여 갑자기 많이 나오거나, 농경에 관계된 도구가 출토될 때를 든다. 현재 빗살무늬토기시대 농경의 흔적을 말해주는 유물로는 지탑리 2지구와 마산리, 남경리, 상촌리에서 출토된 조와 수수의 낱알, 궁산리의 뿔쟁이, 굴봉, 골제, 낫 그리고 지탑리 2지구에서 돌낫, 돌보습, 돌삽 등이 출토되었고 금탄리 1층 문화에서는 돌삽, 돌쟁이 등이, 용당포에서는 돌쟁이, 암사동에서는 돌보습, 돌낫 등이 출토되었다.

북한학자들에 의하면 위의 농경에 관계된 도구들 중 궁산 1기 문화층에선 뿔쟁이의 골제굴봉만이 출토되었고 그 다음 문화기인 궁산2기와 3기에서는 돌낫, 돌보습, 돌쟁이, 돌삽 등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농경의 발달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중 절대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암사동유물이며 그 연대가 BC 2,765±200년으로 나와 있다. 암사동에서 출토된 토기와 농경도구는 지탑리 제2지구의 유물과 형태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탄화된 곡물과 가장 많은 수의 농경도구가 발견된 지탑리 제2지구문화는 적어도 BC 3,000경 중기 빗살무늬토기시대에 원시농경이 어느 정도 실시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해본다.

그리고 최근 조사에 의하면 대천리에서 벼의 낱알, 보리, 밀, 수수, 콩, 그리고 동삼동에서는 조와 수수등이 발견되어 2,500 BC의 절대 연대가 검출된 바 있다. 더하여 충북대학 조사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산 가와지 유적지에서 발견된 벼의 낱알들은 적어도 2,000 BC의 절대연대가 검출되었으며 이 외에도 수많은 빗살무늬토기에서 벼의 플란트 오팔이 확인되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수년간 충북대학에서 발굴한 소로리 유적지에서 벼의 낱알이 발견되어 12,000~13,000년의 절대연대가 검출되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소로리 벼가 재배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V. 한반도의 농경전개에 관한 제문제

한반도 초기 농경문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농기구의 형태적인 변화과정과 문화전파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종래의 설에 따른 농경문화는 대륙으로부터 이민에 의해서나 또는 자연적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전파설은 고고학적으로 출토되는 유물의 변천과정과 현존하는 채집경제사회를 관찰하여 볼 때 큰 모순을 지니고 있다. 만약 한반도의 농경문화가 유럽의 경우처럼 민족의 이동으로 인하여 파급되었다면 성숙된 농경문화가 갑자기 출현하여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어야 했는데, 이와는 반대로 한반도의 원시농경은 서서히 발전되었던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농경문화란 자연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변천하는 사회와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민족지에 나타난 예를 보면 수렵-채집경제인들은 인접의 원시농경민들과 서로 교류하면서도 농경사회로 전환하지 않고 그들과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연환경의 조건이 좋은 채집경제인들은 화전농경민들보다 생계를 위하여 힘쓰는 노동시간이 훨씬 적었고 생활도 윤택하였다. 아울러 생계경제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또한 원시농경민족 보다 낮았다.

다음으로 농경문화가 대륙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전파 수용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왜 농경이 초기빗살무늬토기시대에 수용되지 않고 후에 전파되었는가? 초기빗살무늬토기시대의 문화수준도 충분히 농경문화를 수용할 능력이 있었고, 또한 중국대륙과의 교류도 전개되었다. 둘째, 왜 초기의 농경문화가 서부의 일부지역에만 전파되었고 타지역은 계속 채집경제상태로 머물렀는가?

중서부의 초기빗살무늬토기인들이 원시농경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석기와 초기 빗살무늬토기인들의 문화와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초기신석기(중석기)문화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오가던 중 긍정적인 자료들이 제주도 고산리유적, 홍천 하화계리유적, 남해의 상노대도유적 등에서 서서히 나타났다. 말기구석기시대의 수많은 유적지와 굴포리 등지에서 보여주는 문화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많은 수의 중석기유적지가 한반도에 있었을 거라 생각된다.

초기 신석기(중석기)인들은 후빙기에 접어들면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하여 형성된 풍성한 수산자원을 채집하기 위하여 해안으로 운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중석기연구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도 그러하거나와 또한 한반도의 경우에서도 중석기와 초기 신석기유적지가 해안이나 강안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석기와 초기빗살무늬 토기유적지가 보다 더 많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유적지의 대부분이 계속 상승했던 해수면에 의해 현재 서해의 바닷물 밑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은 일본의 해수면 변천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B.C. 7000~5000년경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현재보다 6~7미터 정도 낮았다고 한다. 이를 한반도의 서해에 적용시켜 본다면 해수면이 얇은 서해의 경우 당시 선사인들이 현재의 해안선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상당히 벗어나서 생활했음이 드러난다. 수산자원을 이용하여 풍요한 생활을 하던 중석기와 초기 빗살무늬토기인들은 토기문화를 소유했을 것이고, 계속 변천하는 해수면의 상승이나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강안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현재 서부지역에서는 선빗살무늬토기 문화층이 발견되지 않고 발달된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 문화가 정착마을과 함께 갑자기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강안 지역으로 이주한 초기빗살무늬토기인들은 과거와는 달리 생활처가 해안에서 강안과 벌판 그리고 야산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들의 경제체계도 지상자원을 채집하는데 주력한 것이다.

새로운 생태계에 다른 경제체계의 변화는 도구의 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중석기문화라 간주되는 상노대도와 고산리 하층문화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갈돌, 돌도끼, 숫돌, 끌, 등이 초기신석기 유적지인 지탑리 제1지구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런 생활의 변화는 또한 토기의 형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밑이 납작했던 소형토기들이 강안의 모래땅에 세워놓기 편리하게 뾰족한 모양으로 바뀌었고 음식을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대형토기로 변화되었다. 자료의 부족으로 이들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채집하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다수의 갈돌과 도토리(가)가 자주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도토리를 중심으로 한 식

물성채집이 유행하였고 동물성먹이로는 복작노루가 사냥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형태의 자연환경자원을 계절에 따라 적절히 이용한 이들은 채집경제로서도 정착생활이 가능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정착생활을 나타내는 증거로는 대형토기, 유물의 양, 주거지의 형태 등이다. 특히 결정적인 요인은 지탑리 유적1호 집자리의 화덕자리가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한 곳에서 정착생활을 했다는 증거이다. 빗살무늬토기 인들은 정착생활로 인한 인구증가 문제를 처음으로 타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생산도구의 개발로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한강유역에서는 중기빗살무늬토기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미사리, 선동 동막동 등의 새로운 거주지역이 암사동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아울러 마제석기의 숫자도 늘어났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후빙최온난기의 종식은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와 당시 주요식량이었던 복작노루를 비롯한 아열대 식물과 패류가 현재의 양자강 남쪽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서부지역의 중기 빗살무늬토기인들은 정착생활로 인한 인구증가의 압력과 자연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자원의 고갈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적 수단으로 북중국대륙에 기원을 둔 원시농경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비록 재배된 곡물이 다른 천연음식물에 비해 극히 적었지만 조와 수수 재배를 시작한 선사인들이 말기신석기시대에는 다시 새로운 농경도구를 이용하여 벼와 보리를 추가 재배하였고, 청동기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집약적인 농업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농경문화는 종래에 생각해 왔던 것처럼 급격하게 전환된 것이 아니라 미동부지역처럼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초기원시농경의 기술형태에 대하여 논해 본다면 보습을 이용한 같이농사가 실시되었다는 이론이 있으나 화전설이 더운 타당하다고 본다. 지탑리에서 출토된 돌보습은 현재 그 기능에 관한 논란이 오가고 있는데 무게가 너무 육중하여 수전이나 모래밭이 아니고는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암사동 유적지가 모래가 섞인 토질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년씩 건너서 해야 할 휴경을 생각할 때 면적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데다 이러한 모래땅에는 감자나 무우 등의 구근식물재배가 적합한 반면, 조와 수수 같은 낱알곡물은 잘 자리지 않는다. 인류학적으로 밝혀진 세계농경사를 보아도 초기의 낱알곡물재배는 대개 화전으로 실시되었고 같이농경은 훨씬 후에 출현하였다. 또한 노동력의 소모에 비례한 수확량도 화전에 비하여 극히 적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지의 생태계를 본다면 초기에는 소규모 텃밭 형식이 채택되고, 다음에 화전농경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한반도의 농경기원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영세한 자료와 지면의 제약관계상 본 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였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가설은 항상 제기되어야 하고 이렇게 제기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신고고학의 한 연구방법이리고 볼 수 있다. 한반도 농경의 기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필자가 제기한 모델을 입증하려면 과학적인 발굴작업과 유물분석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부지역 신석기시대의 각 문화층의 화분분석과 절대연대 검출, 문화층과 문화층 그리고 유적지와 유적지간의 유물통계를 이용하여 경제양상을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발굴에 있어서 유적지의 10cm 층위마다 C.V.S를 채집하여야 한다. 또한 water floatation과 과산화 수소를 사용하여 유구의 흙을 분석해야만 식물성 유물을 찾아낼 수가 있다. 물론 현재 충북대학교에서 시행 중인 식물규소체 분석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